

리듬 깨진 고3 수험생들 '혼란의 나날'

코로나19 여파 개학·모의평가 추가 연기...학사일정 차질 내년 대입 문·이과 구분 없어져 재수 기피 속 불안 해소

광주의 한 고교 3학년인 천모(18)양은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날텐데 이렇게 계속 개학을 연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천양은 "학교에 가지 않는 동안 독서실이나 학원에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며 "생활 패턴도 무너진 느낌이라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휩싸였다. 올해 고3이 된 학생들은 특히 중학생 시

절 도입된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수능은 현행 체제로 치르는 '혼란의 세대'이다. 문·이과 구분 없이 치르는 대입 개편을 1년 유예해 2022학년도 수능에서 시행하기로 한 만큼 고3 학생들은 올해 입시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재수 때부터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개학이 또 다시 연기됨에 따라 19일 치르기로 했던 첫 수능 모의평가도 추가 연기가 확실시되고 있다. 기존 3월, 4월 한 차례씩 있었던 모의고사 일정은 물론 개학 후 얼마 되지 않아 중간고사를 봐야 하는 등 학사 일정 전체가 뒤엎어져 버리고 말

았다.

일선 학교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일제히 개학을 연기하고 학생들의 진급 처리, 반·담임 배정 등 학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코로나 사태가 아이들의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학습은 물론 하루 공부 패턴과 신체 리듬을 유지하지 못해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은 수시 전형에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들어, 수업일수 감축 등을 통해 수시전형에 소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학부모는 "아침에 공부하려 간다면 서 나가는 데 혼자서 제대로 하는 지 궁금

하고 답답하다"며 "코로나19 확산에 학원 보내는 것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도록 할 수도 없어 속이 터진다"고 말했다.

고3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는 "3월 초는 학생 얼굴을 보고 상담하는 기간인데 현재는 전화 상담만 하고 있다"며 "입시 전략을 짤 시간이 줄어들어 가면 되면 학생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A교사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3들은 교육제도가 바뀌는 시기를 여러 차례 겪어 자신을 '마루타'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지금 상황까지 겹치면 피해 의식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마스크 쓴 재판장 "잘 들리나요?"

광주지법 소법정 방청 제한에도 18개 좌석 꼭 들어차

피고인도 이례적 마스크 착용

"잘 들리시나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요."

코로나19 사태로 휴정중인 광주지방법원에서 4일 재판이 열렸다. 앞서, 광주지법(교법·지법·가정)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오는 6일까지 2주간 동·하계 휴정 운영 기준을 적용해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했었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예외로 했었다.

이 때문인지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이날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코로나 19지만 사정이 있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정에서는 애초 피고인 얼굴 확인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불허하고 있다. 방청인 역시 법정 준수 사항을 토대로 마스크나 모자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날은 예외였다.

재판장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을 돕는 법원 실무 공무원 2명과 검사·변호인·구속 피고인·교도관들도 모두 마스크로 절반 가량 얼굴을 가렸다. 마이크에도 위생 커버가 씌워졌다.

평소와 달리 어색한 듯 재판장은 "잘 들리시나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라고 묻는가 하면, 방청석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변론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변호인에게도 "마스크를 쓰시죠"라고 권했다.

변호인도 마스크를 쓰고 변론하는 게 낫긴 하지만 마스크를 내리고 변론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날 재판이 열린 법정은 방청석 의자가 18개 뿐인 소법정이다. 23건의 재판 관련자를 한 명씩만 참석해도 서서 재판을 지켜봐야 할 정도로 비좁다. 이 때문에 법원 직원들은 한꺼번에 많은 방청인이 법정에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 인원을 제한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이날 재판 진행 중 한때 관련자들이 몰리며 방청객들 어깨가 닿을 정도로 18개 좌석이 모두 채워지기도 했다. 재판을 서서 지켜보는 경우도 밧어졌다. 한 방청객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법원에서 느꼈다. 확산세가 하루빨리 꺾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휴정기간을 오는 6일에서 13일까지로 늦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산 학원가 잇단 확진...광주도 비상

시교육청, 추가 휴원 권고

부산의 한 학원에서 수업하던 고등학생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육청과 학원연합회가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지역 학원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광주일보 3월 3일 7면>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4일 오전 정국회 교육감 주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단체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례적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 3국장(교육, 정책, 행정국장)이 모두 참석했으며, 학원측에서는 광주시학원연합회 회장단과 일부 분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교육청 측은 "학생 건강권과 보건안전을 우선시해 달라"며 자발적 휴원을 당부했고, 학원연합회 측은 휴원에 공감하면서 "경영난과 생계문제가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결림돌이자 고충"이라고 호소했다.

교육청과 학원연합회 측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교육 당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조가 절실하다는데 공감대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교육청은 부산의 사례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날 학원들을 상대로 추가 휴원을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예방수칙을 반드시 게시하고, 손 세척제와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상시 비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현재 광주에서는 모두 650개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이 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원 4741개 대비 13.7%이다. 교육청에 휴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휴원한 학원 수는 더 되겠지만 2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 bigkim@

코로나19 예방...민원창구에 등장한 투명 아크릴판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세무와 민원창구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명 아크릴판이 설치돼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온 대구 환자 쾌유 기원합니다"

덕남마을 주민들 현수막 내걸고 달빛동맹 형제 응원

"코로나에 대한 불안과 걱정도 잠시 있었지만 대구시민들이 광주에서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 남구 덕남마을 주민들이 4일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송되는 마을 인근 빛고을전남대병원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앞에 대구 환자들을 환영하고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

덕남마을은 병원에서 50여m 떨어져 있으며 40세대 113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날 빛고을전남대병원 길목 등에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을 맺은 형제입니다.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광주시실천교육교사 모임도 'We are 달빛동맹, 우리는 하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마을 주민인 홍건치(80)씨는 "코로나19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



는 상황"이라며 "대구시민들도 우리 국민인데, 광주에서 풀어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생각으로 주민들과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 설치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마스크 15만장 유통 안고 물류창고 보관한 업자 적발

중국 수출이 막힌 마스크 15만장을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물류창고에 보관해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영암지역 한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3억원을 주고 구입한 마스크 30만장 중 15만장을 중국에 수출하려 했으나 정부의 수출 제한으로 막히자 여러 협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스크를 15만장만 먼저 유통한 뒤 평택항 주변 물류창고에 보관하다가 지난 2일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

동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가 최근 시행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매점매석행위를 조사당일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면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른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를 통해 적발된 마스크를 즉시 유통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셀프 계산대' 허점 노려 프라이팬 숨겨 나가려다 '딱 걸렸네'

○...대형마트 '셀프 계산대'의 허점을 노리고 전자제품과 생필품 사이에 프라이팬을 숨겨서 나가려한 30대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경찰서행.

○...4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A(여·35)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광주시 광산구 L마트에서 고객이 직접 바코드를 찍

어 물건 값을 계산하는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하지 않은 프라이팬 한개를 다른 물품 사이에 섞어 몰래 가져가려다 마트 직원(35)에게 붙잡혔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했다"며 "비슷한 방식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